

##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κεχάρισται* 번역에 관한 연구

권연경\*

### 1. 논증의 문맥

갈라디아서는 대개 1-2장의 자전적 회고, 3-4장의 성경적 논증, 그리고 5-6장의 윤리적 권면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3-4장의 신학적 논증은 바울이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율법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라는 자신의 복음을 더욱 확실히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물론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걸쳐 자신의 논의를 일관성 있게 진행시키고 있으므로 3-4장만 따로 떼어 서신 전체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sup>1)</sup> 바울이 개진하는 복음의 성경적 근거를 보여주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일괄해 보면 학자들의 갈라디아서 해석 역시 3-4장의 분석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이 신학적, 성경적 논증 부분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3장 1-5절은 성령의 선물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졌던 갈라디아 교회의 실제 경험에 바탕을 둔 논증이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약)성경적, 주석적 논증은 이러한 체험을 성경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 바울은 먼저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자들의 믿음과 연관시키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입증한다(6-7절). 그 다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성경의 개념을 활용하여 이신칭의의 진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전해진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8-9절).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저주를 가져다 줄 뿐인 율법과 대조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고(10-13절), 비로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실제로 주어지게 되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 사건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신약학

1) 실제로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조, 특히 3-4장과 5-6장의 관계는 갈라디아서 해석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 J. Barclay, *Obeying the Tru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8), 1-35에 있는 개관과 Barclay 자신의 제안을 보라. 이 점에 대해 필자는 줄저 *Eschatology in Galatians: Rethinking Paul's Response to the Crisis in Galatia*, WUNT II/183 (Tübingen: Mohr Siebeck, 2004)에서 3-4장과 5-6장이 공히 미래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논증하였다.

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성경의 선포가 실현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3:14a). 이러한 복음의 구체적 표현으로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3:14b). 이렇게 보면 3장 1-14절의 논의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마감되는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inclusio*)를 보여준다(3:1-5, 14b).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동일한 아브라함 전통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논의의 성격이 다소 바뀐다. 3장 15-18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한다.<sup>2)</sup>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관계가 약속에 근거하여 맺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 진정한 언약이라고 논증하고 있다.<sup>3)</sup> 사람의 유언/언약(*διαθήκη*)이라도 일단 성립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유언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sup>4)</sup> 따라서 430년이나 뒤에 등장한 율법이 이미 맺어진 약속의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17절). 이어지는 18절은 15-18절에 걸친 “시간적 논증”의 결론 부분으로서, 17절에서 이미 내려진 결론을 한 번 뒤집어 봄으로써 그 결론을 더욱 확실히 하는 일종의 귀류법(*reductio ad absurdum*) 논증에 해당한다.

εἰ γὰρ ἐκ νόμου ἡ κληρονομία, οὐκέτι ἐξ ἐπαγγελίας·  
τῷ δὲ Ἀβραὰμ δι' ἐπαγγελίας κεχάρισται ὁ θεός (3:18).

만일 거짓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만일 유언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는 먼저 세워진 약속 언약이 실상은 정당한 언약이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번 정해진 언약은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연히 (율법이 생기기도 전)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사실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κεχάρισται)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들은 여기서 κεχάρισται를 “(은혜로) 주셨다”는 의미로 번

2) 종종 지적되는 것처럼, “약속”이라는 단어는 칠십인역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개념은 창세기의 사건을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바울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3) 4장 21-31절에서 분명해지는 것처럼, 여기서의 “약속”은 바울 논의의 핵심적 근거로 제시된 “성령”의 성경적 등가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율법의 무력함과 대조되는 것으로 모두 하나님의 창조적 개입을 바탕에 깔고 있는 개념들이다. 필자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를 「웨신원보」 17호 (2004년 6월)에 “의롭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4) 이 논증은 *διαθήκη*가 “언약” 뿐 아니라 “유언”을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인간의 유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하나의 *a minori ad maius* 논증이다.

역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18절 하반절은 유업이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18절 상반절의 질문과 엮어져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의미가 된다.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유업을 주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κεχάρισται*는 단순히 약속 뿐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사실을 표현한다.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번역은 갈라디아서 3-4장에서 바울이 전반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적인 논조를 펼치고 있다는 생각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곧 종종 아브라함이 이미 유업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이런 실현된 종말론적 관점을 공고히 하는 증거의 하나로 제시되곤 하는 것이다.<sup>5)</sup>

본 논문의 목적은 이것이 잘못된 번역임을 밝히고 본 절의 *κεχάρισται*는 “은혜로 (유업을) 주셨다”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다” 혹은 “은혜로이 대하셨다”로 옮기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다. 몇 가지 대표적인 번역들을 개관한 후, 먼저 구문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 주석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 2. 대표적인 번역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독일어와 영어 번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ELB      Denn wenn das Erbe aus dem Gesetz kommt, so kommt es nicht mehr aus der Verheißung; dem Abraham aber hat Gott *es durch Verheißung geschenkt*.

LUT      Denn wenn das Erbe durch das Gesetz erworben würde, so würde es nicht durch Verheißung gegeben; Gott aber *hat es Abraham durch Verheißung frei geschenkt*.

EIN      Würde sich das Erbe nämlich aus dem Gesetz herleiten, dann eben nicht mehr aus der Verheißung. Gott hat aber durch die Verheißung Abraham *Gnade erwiesen*.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Hinge das, was Gott Abraham zugesichert hat, wirklich von der Befolgung des Gesetzes ab, dann käme es nicht mehr aus der Zusage.

5) 대표적으로 H. Eckstein, *Verheißung und Gesetz: Eine Exegetische Untersuchungen zu Galater 2:15-4:7*, WUNT 86 (Tübingen: Mohr Siebeck, 1986) 113, 188-189를 보라.

Gott aber *hat sich Abraham gegenüber dadurch gnädig erwiesen*, daß er ihm eine freie Zusage gemacht hat.

- KJV For if the inheritance be of the law, it is no more of promise: but God *gave it to Abraham by promise.*
- NASB For if the inheritance is based on law, it is no longer based on a promise; but God *has granted it to Abraham by means of a promise.*
- NIV For if the inheritance depends on the law, then it no longer depends on a promise; but God *in his grace gave it to Abraham through a promise.*
- NJB You see, if the inheritance comes by the Law, it no longer comes through a promise; but it was by a promise that God *made his gift to Abraham.*
- NRSV For if the inheritance comes from the law, it no longer comes from the promise; but God *granted it to Abraham through the promise.*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어 번역 두 가지를 제외하면, 독일어나 영어권의 대부분의 번역들은 18절의 *κεχάρισται*를 “(그것을) 주었다”로 번역하고 있다. 물론 영어의 *it* 혹은 독일어의 *es*로 표현된 목적어는 원문에는 없는 것으로, 영어나 독일어의 구문법칙 상 *give* 혹은 *schenken* 등의 타동사들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첨가된 것이다. 이들 번역에서 이 첨가된 목적어는 바로 앞 18절 상반절에 언급된 *the inheritance*를 받는다. 따라서 이들 번역본들은 18절 하반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뜻으로 옮기고 있다.

이 점은 우리 한글 번역들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네 가지 번역을 열거해 보자.

- 『개역』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 『공동』 만일 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 『표준』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온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 『현대』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 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개역』에서는 “은혜로 주신 것이다”로 번역하여 *κεχάρισται* 속에 담긴 은혜의 동기를 표현하였고, 또한 목적어가 없는 원문의 문형을 그대로 살려 목적어 없이 어색한 문장으로 옮기고 있다. 물론 “주신 것이다”라는 타동사로 번역했다는 사실은 이미 그 속에 주어진 목적을 암시하는 것이며, 18절을 전체로 읽을 경우 “유업을 주신 것이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공동』은 아예 “상속의 선물을”이라는 목적어를 첨가하여 『개역』에 암시된 생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동사 *κεχάρισται* 속에 포함된 은혜의 개념은 “선물”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더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개역』의 애매함을 없애고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바로 그 이유로, 목적어가 없는 원문의 구문에서는 그만큼 더 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표준』은 *κεχάρισται*를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라고 옮기고 있다. 『공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다 현대적인 단어인 “상속” 대신 “유업”이라는 개역의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개역의 “은혜로”는 “거저”라는 말로 옮겨져 은혜 속에 담긴 생각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번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의 경우 “은혜로 주신 것이다”는 개역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서 생략된 목적어 자리에 “그런 축복”을 채워 넣고 있다. 유업 혹은 상속이라는 개념을 더욱 일반적인 용어로 옮겨 일반인들에게 전달이 쉽도록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개관해 본 것처럼, 대부분의 영어 번역, 두 가지를 제외한 독일어 번역들, 그리고 모든 우리말 번역들은 18절의 동사 *κεχάρισται*를 “주셨다”는 의미로 옮기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번역에 따르면, 18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유업을 약속하고 있는 16-17절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땅을 유업으로 주심으로써 16절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갈라디아서를 주석하는 학자들 역시 대부분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sup>6)</sup>

어찌 보면 이런 입장이 워낙 지배적이어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대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상적 번역을 바울의 본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오역으로 간주할 만한 이유들이 있다. 이런 이유들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우리의 논의는 구문론적 논증과 주석적 논증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전개될 것이다.

6) Martyn, *Galatian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8), 337은 영어 번역에 첨가된 ‘it’을 아예 ‘inheritance’라는 말로 바꾸어 옮기고 있다.

### 3. 구문론적 고찰

신약성경에서 동사 *χαρίζομαι*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첫째, 무엇인가를 “준다” 혹은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호의”로서 “그저” 준다는 독특한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보다 일반적인 동사 *δίδωμι*와 동일한 동작을 기술한다. 둘째,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다” (*to show oneself gracious to someone*)는 의미이다. 고대 희랍어 문헌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의미이지만,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경우를 제외하면 신약성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용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두 번째 의미의 한 특수한 용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용법이다. 이러한 용법들을 구문론적인 관점에서 개관해 보자.

#### 3.1 타동사로 쓰여 “주다”를 의미하는 경우

이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물론 “(호의로, 그저) 준다”는 의미이다. 논리상 주는 행위는 주어지는 대상을 빼고 생각하기는 어려우므로, 능동태 문장에서는 이런 의미로 쓰였을 경우 항상 주어지는 대상을 나타내는 직접목적어를 동반하여 “무엇을 주다” 혹은 “누구를 주다”는 형태로 쓰인다.

(1) ὅς γε τοῦ ἰδίου υἱοῦ οὐκ ἐφείσατο ἀλλὰ ὑπὲρ ἡμῶν πάντων παρέδωκεν αὐτόν, πῶς οὐχὶ καὶ σὺν αὐτῷ τὰ πάντα ἡμῖν χαρίζεται; (롬 8:32).

(2) πρὸς οὓς ἀπεκρίθη ὅτι οὐκ ἔστιν ἔθος Ῥωμαίοις χαρίζεσθαι τινα ἄνθρωπον πρὶν ἢ ὁ κατηγορούμενος κατὰ πρόσωπον ἔχῃ τοὺς κατηγοροῦς τόπον τε ἀπολογίας λάβῃ περὶ τοῦ ἐγκλήματος (행 25:16. Cf. 24:11; 27:24)

(3) ἐν ἐκείνῃ τῇ ὥρᾳ ἐθεράπευσεν πολλοὺς ἀπὸ νόσων καὶ μαστίγων καὶ πνευμάτων πονηρῶν καὶ τυφλοῖς πολλοῖς ἐχαρίσατο βλέπειν (눅 7:21).

이 경우, 주어지는 대상 곧 직접목적어는 사물이 될 수도 있고(1), 사람이 될 수도 있다(2). 그 형태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1과 2), 혹은 부정사가 되기도 한다(3). 또한 수혜자를 가리키는 여격의 간접목적어가 명시될 수도 있고(1과 3), 혹은 간접목적어 없이 직접목적어만 나오기도 한다(2).

직접목적어 혹은 간접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 구문에서는 직접목적어 없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때는 문법적 주어가 실제로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ὅτι ὑμῖν ἐχαρίσθη τὸ ὑπὲρ Χριστοῦ, οὐ μόνον τὸ εἰς αὐτὸν πιστεύειν ἀλλὰ καὶ τὸ ὑπὲρ αὐτοῦ πάσχειν (빌 1:29; cf. 행 3:14).

(2) ἡμεῖς δὲ οὐ τὸ πνεῦμα τοῦ κόσμου ἐλάβομεν ἀλλὰ τὸ πνεῦμα τὸ ἐκ τοῦ θεοῦ, ἵνα εἰδῶμεν τὰ ὑπὸ τοῦ θεοῦ χαρισθέντα ἡμῖν (고전 2:12).

위의 두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문법적 직접목적어가 없는 수동태 구문에서도 의미상 주어지는 내용은 항상 분명히 나타난다(또한 몬 1:22). (1)번 예문에서는 τὸ ὑπὲρ Χριστοῦ, 혹은 뒤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τὸ εἰς αὐτὸν πιστεύειν과 τὸ ὑπὲρ αὐτοῦ πάσχειν이라는 τὸ εἰς + 부정사 구문이 문법적 주어로서 의미상 직접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역시 τὰ ὑπὸ τοῦ θεοῦ χαρισθέντα ἡμῖν 속에 주어지는 대상이 이미 표현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χαρίζομαι가 “주다”는 의미로 쓰였을 경우 항상 그 주어지는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χαρίζομαι가 능동태로 쓰여 무언가를 “주다”는 의미가 될 경우 항상 직접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 3.2 자동사 혹은 타동사로 쓰여 “은혜로이 대하다” 혹은 “용서하다”는 의미로 쓰일 경우

신약성경에는 “용서하다”는 의미 역시 나타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호의를 베푼다”는 보다 일반적인 의미가 “용서”라는 특정한 호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연 이 용법에서는 용서를 받는 대상이 항상 여격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 ἀνεχόμενοι ἀλλήλων καὶ χαριζόμενοι ἑαυτοῖς ἕαν τις πρὸς τινα ἔχη μομφήν· καθὼς καὶ ὁ κύριος ἐχαρίσατο ὑμῖν, οὕτως καὶ ὑμεῖς (골 3:13).

(2) καὶ ὑμᾶς νεκροὺς ὄντας [ἐν] τοῖς παραπτώμασι καὶ τῇ ἀκροβυστίᾳ τῆς σαρκὸς ὑμῶν, συνεζωοποίησεν ὑμᾶς σὺν αὐτῷ, χαρισάμενος ἡμῖν πάντα τὰ παραπτώματα (골 2:13).

이 경우, (2)번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용서의 대상을 나타내는 간접목적어뿐 아니라(엡 4:32; 고후 2:7 등), 용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는 직접목적어가 부가되기도 한다(고후 2:1; 12:13 등).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서하다”는 의미가 “호의를 베풀다”는 의미의 한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χαρίζομαι*의 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곧 “주다”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호의를 베풀다” 혹은 “용서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직접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로서 능동태에서건 수동태에서건 항상 주어지는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명시되며, 후자의 경우 자동사로서 호의나 용서의 수혜자가 간접목적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경우 용서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직접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다.

위에서 살핀 구문론적 자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곧 *χαρίζομαι*가 직접목적어와 함께 타동사로 쓰인 경우 기본적으로 “주다”는 의미가 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죄 혹은 빚을) 용서하다/탕감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χαρίζομαι* 동사가 직접목적어 없이 간접목적어와 더불어 자동사로 쓰인 경우에는 “...에게 호의를 베풀다”는 의미, 혹은 이런 의미의 한 특수한 형태로 “...를 용서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을 주다”는 의미는 될 수 없다. 이 경우 강조되는 것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사건 혹은 동작이 아니라 “은혜” 혹은 “호의”로 규정되는 관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호의가 어떤 구체적인 정황을 염두에 두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문장 자체의 관심은 이런 정황이 “은혜” 혹은 “호의”의 성격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논의를 생략하였지만, 위에서 내린 결론은 신약 외의 문헌들에 대해서도 공히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칠십인역, 혹은 교부들의 글들에서도 *χαρίζομαι* 동사는 빈번히 등장하지만, 이 단어가 아무런 목적어를 동반하지 않은 채 무언가를 “주다”는 의미로 쓰인 예는 찾아볼 수 없다.<sup>7)</sup> 이는 신약 그리스어 연구에 의미가 있을 만한 고전 그리스어 문헌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8)</sup> 이런 의미로 쓰인 예가 드물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신약 외 문헌들의 경우 이 동사는 대부분 “주다”는 의미를 가진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항상 주어지는 내용을 명시하는 목적어가 함께 나타난다.<sup>9)</sup>

7) 마카비하 4장 32절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동사 *ἐχαρίσατο*의 목적어가 목적격 형태로 같은 문장 안에서 이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적어의 생략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갈라다 아서 3장 18절과는 경우가 다르다 하겠다.

8) 몇몇 구절들에 대한 논의가 *LSJ*나 *TDNT*, 혹은 *Moulton-Milligan* 등의 표준적인 참고서들에 나와 있고, 각주 10번에 언급된 *Schlier*의 주석에도 간략한 논의가 제시되어 있다. 더 많은 경우를 확인하려면 *Perseus Project* 등의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구문론적 관찰을 근거로 하여 본다면, 갈라디아서 3:18b의 *κεχάρισται*를 통상적인 번역에서처럼 “(은혜로) 주셨다”고 옮기는 것은 동사 *χαρίζομαι*를 지배하고 있는 **구문론적인 용법을 무시한** 명백한 오역이다. 본 구절에서는 *χαρίζομαι* 동사가 직접목적어 없이 간접목적어와 결합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혹은 “은혜롭게 대하셨다”로 번역되어야 옳다. 그렇다면 본 구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주신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약속 수여의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으로 보았다. 곧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행위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위에 인용된 성서 번역 중에서는 독일의 *Einheitsübersetzung*과 번역이라기보다는 풀이역이라 할 수 있는 *Die Bibel in heutigem Deutsch* 만이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Gott hat aber durch die Verheißung Abraham Gnade erwiesen.*

Hinge das, was Gott Abraham zugesichert hat, wirklich von der Befolgung des Gesetzes ab, dann käme es nicht mehr aus der Zusage. Gott aber *hat sich Abraham gegenüber dadurch gnädig erwiesen*, daß er ihm eine freie Zusage gemacht hat.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본문을 주해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통상적인 해석을 피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본래의 의미로 해석하는 이들이 여럿 있다. 가령 Schlier는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갈라디아서 3:18의 *χαρίζεσθαι*는 “목적어를 보충하지 말고” ‘은혜를 나타내셨다’라고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약속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다는 것이다.<sup>10)</sup>

신약성서에 대한 표준 사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BAGD*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 동사가 여격의 간접목적어와 더불어 쓰일 경우 “누구에게 호의를 베푼다” (*show oneself gracious to someone*)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풀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갈라디아서 3장 18절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문론적 견지에서만 본다면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나오는

9) 칠십인역에는 가령 시락서와 마카비에서 발견되는데 모두 (무엇을) “주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하면서 *δίδωμι*와 더불어 쓰이고 있는 *Esther* 8:7 및 *Didache* 10:3을 보라. 신약 이전 유대교 문서에서 “호의를 베푼다”는 의미로 쓰인 경우로 *Epistle of Aristeeus* 38과 228을 들 수 있다.

10) Schlier, *Galater*,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149, n.3.

χαρίζομαι 동사에 대한 유일한 번역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BAGD 역시 이런 구문론적 관찰에 절대적인 무게를 부여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번역을 따라 “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동사가 “give freely” 혹은 “give graciously as a favor”의 의미를 갖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구문에서는 이런 의미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BAGD는 “만일 문맥으로부터 ‘유업을’ 이라는 목적어를 보충하여 읽어야 한다면” 그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1)</sup> 이것은 대부분의 성경 번역과 주석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의미상 목적어가 전제되어 있지만, 전후 문맥상 너무 분명하여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사실은 있어야 하는 직접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절의 κεχάρισται는 막연히 “호의를 베풀었다”는 의미로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유업을) 주셨다”는 타동사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 제기되어야 할 당연한 질문은 이런 해석이 구문론적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곧 구문 법칙 상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목적어를 바울이 무슨 이유로 생략하였는지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문맥상 너무 명백하여 생략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문론적 이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명백한 목적어를 생략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불가능한 생각은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동사가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종류의 단어라는 사실이다. 앞 문장에서 주격으로 나온 단어가 그 다음 문장의 목적어로 전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무리한 주장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신약성경이나 다른 문헌 어디에서도 통상적인 해석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구문론적 “용통성”을 입증해 줄 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곧 직접목적어 없이도 “주다”는 의미를 유지하는 용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바울이 굳이 “주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직접목적어의 유무와 관계없이 항상 “주다”는 의미를 유지하는 δίδωμι를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고전 3:5; 고후 9:9). 사실 바로 뒤 문맥인 3장 21-22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수여나 “약속”의 수여에 대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δίδωμι 동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 동사는 실제로 칠십인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바울은 실제 창세기에서 쓰였을 뿐 아니라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한 δίδωμι 동사를 피하고 굳이 덜 일반적인 χαρίζομαι 동사를 골라 쓰고 있다. “은혜”의 차원을 부각

11) BAGD, *ad loc.* TDNT, IX, 396에서 콘첼만(H. Conzelmann)은 한 걸음 더 나가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는 “항상 ‘주다’라는 기본적 의미와 더불어 쓰인다”고 주장한다.

시키기 위해 *δίδωμι* 대신 *χαρίζομαι*를 썼다고 하더라도, 유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면 구문법의 요구에 따라 앞 절의 *ἡ κληρονομία*를 받는 대명사 *αὐτήν*을 자연스럽게 삽입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셨다”는 의미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그렇다면 이런 구문론적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단어를 “주셨다”는 의미로 번역해야 할 어떤 근거가 존재하는가? 일단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는 구문론의 영역을 벗어나 주해의 단계로 넘어간다. 대부분의 번역이나 주석가들이 구문론적으로 불가능한 의미를 주석적 근거에서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주셨다”는 기존의 번역은 구문론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주석적인 면에 있어서도 잘못된 선택이라는 사실을 논증하게 될 것이다.

## 4. 주석적 고찰

### 4.1 논증의 문맥

1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 구절의 논의(3:15-18)를 시작하면서 묻는 질문은 “유업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 단락에서 바울의 논의는 통상 “시간적” 혹은 “연대기적”(chronological) 이라고 간주된다. 바울이 약속이 시간적으로 율법에 선행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약속의 언약이 참된 언약임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 우위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사실 바울의 논리는 대단히 간명하다. 약속이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약속이 진정한 언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단락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16절에서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구절에 참가하고 있는 자신의 기독교적 주석이다. 곧 이 “씨”는 단수로서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부연 설명으로 인해 본래의 논점이 다소 흐려지는 것이다. 물론 논의의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담지자임을 밝히는 대목(v. 23), 그리고 이 하나의 “씨” 안에 믿는 자들이 포함되어 동일한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동일한 약속을 공유한다는 주장에 이르면 이 기독교적 주석의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니까 16절에 달린 바울의 이 주석은 앞으로 이어질 자신의 논의를 준비하는

12) 구문론적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실바(M. Silva)조차도 이 대목에서는 구문론적 원칙을 무시하고 대부분의 주석가와 견해를 같이 하여 자신의 번역에서 the inheritance를 괄호에 넣어 삽입하고 있다. 그의 *Interpreting Galatians: Explorations in Exegetical Method* (Grand Rapids: Baker, 1999), 192를 보라. 그런 점에서 “목적어를 첨가하지 말고” “은혜를 드러내셨다”로 옮길 것을 제안하는 쉘리어(Schlier)가 바울의 의도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각주 8번을 보라.

전략적 포석이다. 하지만 15-18절의 자체의 논의만 두고 본다면 이 기독교론적 주석이 시간적 논증이라는 논리의 흐름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는 면이 있다. 이 대목을 잠시 괄호로 묶고 나머지 구절들을 읽으면 바울의 논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삼단논법을 이룬다.

- 15절 유언이란 일단 확정되면 나중에 무효화하거나 더할 수 없는 것이다
-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약속을 말씀하셨다 (약속의 언약 체결)
- 17절 따라서 나중에 온 율법은 훨씬 먼저 확정된 약속 언약을 무효화하지 못한다.

사실 여기까지 이르면 바울의 논점은 이미 분명히 제시된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8절은 17절에서 일단 내려진 결론을 한 번 뒤집어 보고, 이 결론이 엄연한 성경적,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약속의 우위성이라는 본래의 결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대목이다.

- 18a절 만일 유업이 율법을 통해 주어진다면, 약속은 무효화되었다는 말이 된다.

물론 바울의 적대자들이나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의 유혹을 받았겠지만, 실상 이런 생각은 허구적인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 18b절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 4.2 아브라함에게 유업이 주어졌는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5-18절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바울의 논증은 약속이 율법에 시간적으로 우선한다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점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18절에 있는 진술의 의미이다.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부분의 번역과 주석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은혜로 주셨다”는 의미가 맞는 것인가? 우리의 번역을 지지하는 근거로 위에서 제시한 구문론적인

근거에 더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석적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다고 해석하게 되면 여기서 바울은 시간적 우선성 외에 아브라함이 유업을 실제로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 논증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바울이 이 구절에서 제일 공을 들고 있는 시간적 논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시간적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미 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이 “받음”이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그 자체로 약속이 유업의 참된 방식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된다. 애초부터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굳이 약속이 율법보다 시간상 먼저 주어진 것이므로 우선이라는 좀 “미심쩍은” 논증을 생각해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sup>13)</sup> 그나마 그런 결정적인 근거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제시하지도 않은 채 논증의 결론부에서 지나가듯 슬쩍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15-17절에 있는 바울의 논의를 읽어 보면 우리는 바울이 마치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는 것처럼 논의를 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약속이 율법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근거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다. 이에 대한 가장 자연스런 설명은, 바울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유업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18절의 κεχάρισται를 “주셨다”고 번역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15-17절 사이의 논의를 지극히 어색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둘째, 유업이 약속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나 하는 질문은 애초부터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염두에 둔 질문으로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적용되는 질문은 아니다. 곧 실제로 바울이 말하는 유업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기대하는 유업이지 오래 전 아브라함이 벌써 받아 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율법이 들어오기 430년 이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율법이나 약속이나” 하는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18절 상반절에 명시된 상황, 곧 “유업이 율법에서 오는 것이라면” 하는 가정은 현재 율법과 약속 사이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갈라디아 교인들의 정황을 염두에 둔 질문이다. 여기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다리는 유업은 율법

13) 이 대목에서 던(Dunn)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시간적 우선성에 근거한 논의가 “만족스럽지 못하며,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여기고, 이런 이유로 바울이 1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은혜로 유업을 “주셨다”는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후에 로마서에서는 아예 시간적 논증 자체를 포기해 버렸다고 주장한다. J. D. G. Dunn, *Galatians* (Peabody, MA: Hendrickson, 1993), 183, 186; *Theology of Galatians* (Cambridge: CUP, 1993), 88, 96-97을 보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울의 논증을 폄하하는 것은 바울보다는 던(Dunn) 자신의 논증을 더 의심하게 만든다. 다소 다른 문맥이기는 하지만, 바울은 칭의와 할례의 관계를 논하는 로마서 4장에서조차 여전히 시간적 우위에 근거한 논증을 펼치고 있다. 또한 H. Räisänen, *Paul and the Law* (Philadelphia: Fortress, 1983), 43-44에 있는 비판도 참고하라.

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성령)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적 근거에서 증명하려는 의도에서이다. 그래서 바울은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성립된 본래 언약임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약속의 시간적 우선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창세기 문맥 내에서나 그 이후 아브라함 전통에 대한 후대의 해석 어디에도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 생전에 성취되었다는 생각은 찾아볼 수 없다. 사실은 이와 정 반대이다. 창세기 본문은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애초부터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의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곧 가나안 땅을 밟은 후 주어진 첫 약속은 하나님이 “이 땅” (τὴν γῆν ταύτην)을 “너의 후손에게” (τῷ σπέρματί σου) 주시겠다는 것이었다 (12:7). 아브라함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다. 이어 15장에서는 땅을 주시는 일이 아예 네 세대가 지난 후의 시점으로 명시되었으며 (16절), 이 사실은 엄중한 의식을 통해 하나의 언약으로 확증되었다. 물론 이 언약 내용 역시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12장의 약속을 거의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τῷ σπέρματί σου δώσω τὴν γῆν ταύτην (18절).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분명한 의도는 그 유업을 실제로 누릴 자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 약속에 대한 후대의 해석 역시 다르지 않다. 가령,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구약의 족장들을 두고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처럼 거하며 장막에서 살았다”고 말한다(παρώκησεν εἰς γῆν τῆς ἐπαγγελίας ὡς ἄλλοτριαν ἐν σκηναῖς κατοικήσας, 11:9).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삶은 약속한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고 그 미래의 유업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인해 이 땅에서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μὴ λαβόντες τὰς ἐπαγγελίας)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ξένοι καὶ παρεπίδημοι)로라 증거하였으니 (11:13).

더욱 인상적인 경우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테반의 설교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것을 그가 제시하는 기독

론적 설교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

… καὶ οὐκ ἔδωκεν αὐτῷ κληρονομίαν ἐν αὐτῇ οὐδὲ βῆμα ποδός  
καὶ ἐπηγγείλατο δοῦναι αὐτῷ εἰς κατάσχεσιν αὐτὴν καὶ τῷ  
σπέρματι αὐτοῦ μετ’ αὐτόν, οὐκ ὄντος αὐτῷ τέκνου (7:5).

누가가 보고하는 스테반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밭 퉨을 만큼의 땅조차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별다른 설명이 없는, 당연한 일을 서술하는 듯한 스테반의 어조로 보아 그가 언급하고 있는 해석의 전통이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것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널리 퍼진 견해와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넷째로, “주셨다”는 번역이 타당하지 않은 또 한 가지 근거는 바울이 아브라함과 나란히 약속의 담지자가 된 “그 후손”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바울의 의도는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무대에 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브라함과 동등한 약속의 담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4)</sup> 하나님의 약속이 본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후손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동시에 “그 후손” 곧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다. 물론 바울이 이런 기독교적 논증을 펴는 실제적인 목적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자들 역시 동일한 약속의 담지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로 확대된다. 곧 믿는 자들이 이 후손 속에 있게 됨으로써 동일한 약속의 수혜자,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3:29). 바울의 의도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유업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의 신자들에게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유업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유업을 그리스도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확대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다섯째, 바울이 창세기 문맥에서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고 할 때 쓰였던 동사 δίδωμι를 피하고 대신 χαρίζομαι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해 볼 가치가 있다.

14) 그리스도가 약속의 내용이 되는 것처럼 옳고 있는 『개역』의 “약속하신 자손”과 『공동』의 “약속된 그 후손”은 오역이다. 『개역』은 “약속을 주신 자손”이라는 의미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의 경우는 달리 설명하기 어려운 명백한 오역이다. 본문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약속을 부여받은 대상이요 약속의 담지자라는 것이다. 『개역개정』 역시 개역의 오류를 그래도 반복하고 있지만, 『표준』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라 하여 본문의 의도를 올바르게 옳고 있다.

16절에서 보듯, 바울은 창세기의 구체적인 본문이 표현된 어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만일 바울이 실제로 유업이 주어졌음을 표현하고자 했다면, 애매한 *χαρίζομαι* 동사를 목적어도 없이 사용하여 의미의 혼란을 일으키는 대신 간단히 창세기에서 실제로 사용된 *δίδωμι*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많다.

여섯째, 바울은 3-4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업에 관한 논의를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생각과 연결시키고 있다 (5:21). 물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약속-유업이 성령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다는 잘못된 주석에 근거하여 미래종말론적인 이 구절을 3-4장의 실현된 종말론적인 유업 논의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한다.<sup>15)</sup> 하지만 땅을 주리라는 아브라함 약속이 사실은 성령을 주리라는 약속이었다는 식의 억지스런 해석에서 일단 벗어나면,<sup>16)</sup> 이 두 “유업”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막아야 할 별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는 사상 자체가 다름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에서 도출된 전통이라는 점이다.<sup>17)</sup>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3-4장의 약속-유업에 대한 논의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는 사상은 사실상 동일한 주제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장 30절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οὐ μὴ κληρονομήσει)는 표현과 5장 21절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οὐ κληρονομήσουσιν)는 표현의 유사성 역시 바울의 편지를 읽고 듣는 이들에게 이런 상관성을 더욱 깊이 부각시켰을 것이다. 종종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개념이 공관복음에는 빈번한 개념이지만 바울에게는 그리 자주 등장하는 생각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구절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sup>18)</sup> 이런 주장은 실상 주석적인 근거

15) 가령 엑스타인(Eckstein)은 5장 21절의 유업 개념은 로마서 4장 13절과 통하는 것으로, 갈 3-4장의 유업 논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H. Eckstein, *Verheißung und Gesetz: Eine Exegetische Untersuchungen zu Galater 2:15-4:7*, 89. 하지만 같은 서신 내에 가까이 있는 구절과는 다르고, 멀리 있는 로마서와는 같다는 식의 설명이 자연스럽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6) 이 해석의 억지스러움은 아브라함 약속에서 실제 성령에 대한 약속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윌리엄스(Williams)의 논문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S. K. Williams, “Promise in Galatians: A Reading of Paul’s Reading of Scripture,” *JBL* 107 (1988), 709-720.

17) 가령 *Ps. Sol.* 14:10; *1 Enoch* 40:9; *4 Macc.* 18:3; *T. Job* 18:6-7; 47:1; *2 Bar.* 44:13; *4 Ezra* 7:96; *2 Enoch* 9:1; 10:4-6; 66:6. 또한 D. J. Hester, *Paul’s Concept of Inheritance* (Edinburgh: Olive and Boyd, 1968), 29-36, 79와 B. Byrne, ‘Sons of God’ - ‘Seed of Abraham,’ *Analecta Biblica* 83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9), 68-70 등의 논의를 보라.

18) 가령, J. Gager, “Functional Diversity in Paul’s Use of End-time Language,” *JBL* 89 (1970), 333과 K. Donfried, “The Kingdom of God in Paul,” W. Willis ed., *The Kingdom of God in Twentieth-Century Interpretation* (Peabody, MA: Hendrickson, 1991), 186 외에도 H. D. Betz나 R. Longenecker의 주석 (5:21)을 보라.

를 결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독특한 표현은 공관복음에서는 “의외로” 매우 드문 반면 바울서신에서는 훨씬 더 빈번히 등장하는 것으로 차라리 바울적 사상이라고 할 만하다(고전 4:40; 6:9, 10; 15:50; 갈 5:21; 엡 5:5). 그리고 이 경고에 흔히 더해지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나 “알지 못하느냐”와 같은 도입구 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울이 빼놓지 않고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 중 하나였음이 분명하다(갈 5:21; 고전 6:9).<sup>19)</sup> 이것이 바울의 사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석적 근거가 없는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필요로 하는 요점은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다. 유업은 아브라함 뿐 아니라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직 이루어져야 할 소망으로 남는다. 바로 여기에서 “율법이나 믿음이나” 하는 질문이 생겨난다.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율법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은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 약속의 원칙이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언약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κεχώρισται*의 완료 시제의 의미는 가나안 땅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약속이 정당한 언약으로 이미 성립되었고, 이 언약은 오늘날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물론 바울은 이 “약속”의 원리가 현재 갈라디아 교회 혹은 더 넓게는 자신의 사도적 목회적 정황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성령이 실제로 아브라함 약속의 내용이 된다는 식의 기계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sup>20)</sup> 아브라함 때에 약속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창조적인 역사하심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성령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 것이다.<sup>21)</sup> 약속이 참된 상속자인 이삭을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성령은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산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고, 성령의 인도 아래

19) H. D. Betz, *Galatians: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Churches in Galatia*, 284-285; D. Lull, *The Spirit in Galatia* (Chico, CA: Scholars Press), 35-36.

20)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3장 14절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여 성령이 약속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작위적 해석에 대한 비판을 보려면 각주 1번에 언급된 필자의 책 제 5장을 참고하라.

21) 이는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과 성령을 통해 태어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약속에 의한 자녀”요 “성령에 의한 자녀”라 지칭하며 이를 “육체에 의한 자녀”와 대조하고 있는 4장 21-31절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서 약속-성령 사이의 공통분모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더욱 자세히 밝히는 것처럼, 아브라함 부부의 “부활” 및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창조의 능력을 가리킨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삭과 같이 미래 유업의 상속자로 서 있다(4:1-7; 21-31). 바로 이런 의미에서 약속이 유업의 참된 근거가 된다는 (구약)성경적 진술은, 갈라디아 상황에서는 성령이 미래의 유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선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sup>22)</sup> 의의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5장 5절).

## 5. 결론

위에서 우리는 구문론적 근거와 주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갈라디아서 3장 18절의 *κεχάρισται*가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은혜로) 주셨다”는 의미로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셨다” 혹은 “은혜롭게 대하셨다”는 뜻으로 번역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구문론적으로는 동사 *χαρίζομαι*가 직접목적어가 없이 간접목적어와 더불어 쓰인 경우 “준다”는 의미가 될 수 없고 대신 “호의를 베푸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 용례를 통해 증명하였다. 또한 주석적 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다”는 생각이 실제 바울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논증하였다. 대부분의 번역들이 “주셨다”는 의미를 고수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구문론적인 요구를 고려하지 않는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바울의 논의를 실현된 종말론적 입장에서 잘못 주해한 탓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본문의 번역을 마련하는 데 적은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는 3장 18절 하반절을 아래의 예문들과 같이 번역할 수 있으리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 \* 주요어

은혜, 아브라함, 유업, 율법, 약속. *grace, Abraham, inheritance, law, promise.*

22) 이 구절은 개역에서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라는 서로 독립된 두 개의 부사구로 번역된다. 위에 제시한 번역에 대한 논증은 각주 1번에 언급된 필자의 책 180-181쪽을 참고하라.

## \* 참고문헌

- 권연경, “의롭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 「웨신원보」 17 (2004년 6월).
- \_\_\_\_\_, *Eschatology in Galatians: Rethinking Paul's Response to the Crisis in Galatia*, WUNT II/183,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Barclay, J. M. G., *Obeying the Trut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8.
- Betz, H. D., *Galatians: A Commentary on Paul's Letter to the Churches in Galatia*.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Byrne, B., “‘Sons of God’ - ‘Seed of Abraham’,” *Analecta Biblica* 83,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9.
- H. Conzelmann, χάρις κτλ., *TDNT* IX, 391-415.
- Donfried, K., “The Kingdom of God in Paul,” W. Willis ed., *The Kingdom of God in Twentieth-Century Interpretation*, Peabody, MA: Hendrickson, 1991, 175-190.
- Dunn, J. D. G., *Galatians*, Peabody, MA: Hendrickson, 1993.
- \_\_\_\_\_, *Theology of Galatians*, Cambridge: CUP, 1993.
- Eckstein, H.-J., *Verheißung und Gesetz: Eine Exegetische Untersuchungen zu Galater 2:15-4:7*, WUNT 86, Tübingen: Mohr Siebeck, 1986.
- Gager, J., “Functional Diversity in Paul's Use of End-time Language,” *JBL* 89, 1970, 325-337.
- Hester, D. J., *Paul's Concept of Inheritance*, Edinburgh: Olive and Boyd, 1968.
- Longenecker, R., *Galatians*, WBC, Waco, TX: Word, 1990.
- Lull, D., *The Spirit in Galatia*, Chico, CA: Scholars Press.
- Martyn, J. L., *Galatians*,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8.
- Moulton, J. H., & Milligan, G., *Vocabula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Peabody, MA: Hendrickson, 1997. Reprint of 1930 edition by Hodder and Stoughton.
- Räsänen, H., *Paul and the Law*, Philadelphia: Fortress, 1983.
- Schlier, H., *Galater*, KEK,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Silva, M., *Interpreting Galatians: Explorations in Exegetical Method*, Grand Rapids: Baker, 1999.
- Williams, S. K., “Promise in Galatians: A Reading of Paul's Reading of Scripture,” *JBL* 107 (1988), 709-720.

<Abstract>

## κεχάρισται in Galatians 3:18

Prof. Yon-kyong Kwon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main thesis of the present study is that the verb χαρίζομαι in Galatians 3:18b should be translated intransitively as “(God) show favor to” instead of “to give” as is typically done by most Bible translations and exegetes.

After a brief look at the general flow of Paul’s argument up to 3:18, the author provides a short survey and comparison of several major translations in German, English and Korean, ascertaining the fact that most modern translations, excepting two German ones, render the verb in the transitive sense of “to give.”

The author’s argument for the intransitive translation of χαρίζομαι consists of two major parts: syntactical (section 3) and exegetical (section 4). The syntactical argument examines the use of the verb in the New Testament and concludes that with a direct object the verb can take up the transitive meaning of “to give,” but without one it always becomes intransitive to mean “to show favor to somebody” or, more specifically, “to forgive” in a few cases. On the basis of this syntactical observation, the author contends that κεχάρισται in Galatians 3:18b, which comes without any direct object attached to it, should be taken to be an intransitive rather than a transitive. Unlike most translations, then, the verb must be rendered “to show favor to,” not “to give.” The syntactical argument is followed by an exegetical one in which the author contends that the transitive rendering of “to give” is also ill-advised exegetically. For this the author makes six major points to criticize the dominant reading of Paul’s argument, which assumes the transitive sense of the verb, as well as to justify his own reading of Paul’s argument based on the intransitive rendering of the verb.

On the basis of these arguments, the author suggests that Galatians 3:18b should be translated as follows: “But God has shown favor to Abraham through promise.”